



이보다 더 감쪽할 수 없다 송원초 발레 군무팀이 앙증맞은 모습으로 '꿈꾸는 소녀들'을 선보이고 있다.



설장구 얼썩~ 흥겨운 장구 가락에 어깨가 들썩인다. 김광윤(여수소호초 1년)군의 설장구 공연 모습.

꼬마 예술가들 '꿈의 무대'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58회 호남예술제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무용·음악·국악 분야에 참여한 예술 꿈나무들의 진지한 경연 모습을 화보로 엮었다. 꿈나무들의 예술 등용문인 이번 대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며 6월에는 미술과 작문 경연이 이어진다.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발레 창작 독무 부문에 참여한 오다현(신창중 1년)양이 '불새'를 선보이고 있다.



선녀가 내려왔네

아름다운 해금 선율을 들려준 정하은(여도초 4년)양의 공연 모습.



하늘을 위한 아홉 멋진 앙상블을 보여준 한빛무용학원의 '스파이 게임'



소녀들의 병창가락 경쾌한 가야금 반주에 맞춰 '화초티령'을 부르고 있는 송원초등학교 가야금 병창팀.